

강진군 리모델링 빈집 1호점 입주자 선정

대상자 개별 인터뷰 실시, 입주 대상 1가구 선정

“강진에서 장기 플랜으로 오랫동안 거주할지 관건”

강진군은 지난 20일, 빈집 리모델링이 완공된 1호점에 입주할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빈집 등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입주 대상 1가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회의장에는 강진군 빈집 등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강진 부군수와 강진군의회 의원, 관련 부서장, 주택과 귀농귀촌 분야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고 빈집 1호점이 위치한 마을이장도 임회했다.

심의를 신청자의 연령대, 전입 가구원 수 등을 점수화하는 객관적 평가인 서류평가(50점)와 대상자의 전입 목적, 향후 강진에서의 경제·사회적 계획 등에 대해 인터뷰를 통한 면접평가(50점)를 합산해 종합점수가 높은 1순위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공고 이후 총 22가구가 신청해, 1차 서류심사를 거쳐 총 7가구가 선정되었고, 이날 7가구를 대상으로 2차 개별 인터뷰를 실시해, 최종 1가구가 선정되었다.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강진군과 12월 말에 계약해 2년을 거주할 수 있으며 2회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입주자는 입주 계약 체결 후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계약 만기 전까지는 전입 가구원 수를 유지해야 한다.

심의를 위원장인 서순철 강진 부군수는 “이번 대상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은 빈집리모델링 입주 생활이 끝나도 강진에서 계속해서 머무르지의 여부였다”며 “단순히 전입해 계약기간만 잠깐 살고 갈 입주자가 아니라, 이 지원을 받기 위해 산아 강진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닦으며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는 분을 모시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경제적, 사회적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 부군수는 또 “단기적으로 강진군의 육아정책, 귀농정책만 보고 전입해, 혜택만 보고 강진에 기여하는 것이 없다면 선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강진에서의 오랜 플랜을 갖고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재, 귀농정책만 보고 전입해, 혜택만 보고 강진에 기여하는 것이 없다면 선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강진에서의 오랜 플랜을 갖고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장흥군,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본격추진

장흥군 '정남진 은하수로드' 관광명소 조성 사업의 2건이 문화체육관광부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에 반영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은 광역관광 개발계획으로 K-컬처, K-관광을 활용하여 하루 더 머무는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 구축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장흥군은 현 정부 국정과제인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 반영을 위해 전라남도과 적극 협력해 왔다. 장흥군에서 제출한 10개 사업 중 최종 3개 사업, 총 614억원(국비 307, 도비 92, 군비 215)을 확보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정남진 은하수로드 관광명소 조성(1단계, 171억원), ▲명상치유 관광루트 관광명소 조성(2단계, 181억원), ▲남해안 항공관광 복합터미널 구축(2단계, 262억원) 사업이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남부권 광역관광 1단계 선도사업으로 '정남진 은하수로드' 관광명소 조성은 본예산 8억 원을 확보했다.

사업계획수립, 설계공고, 행정절차 등을 추진하여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남서권, 남중권, 남동권, 3개 권역 연계협력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남부권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관광 개발계획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영·호남 5개 시도, 40개 시군이 참여하는 대형 관광개발 사업이다.

총 3조원 규모로, 2024년부터 2033년까지 10년간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장흥=김도영 기자



진도군, 코레일 관계자 초청 홍보여행(팸투어) 실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위해...운림산방·진도타워 등

진도군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광주전남본부 관계자 8명을 초청해 진도 홍보여행(팸투어)을 실시했다.

이번 홍보여행(팸투어)은 철도와 연계한 여행상품 개발로 관광객 유치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운림산방, 신비의바닷길 체험관, 진도타워 등 진도의 대표 관광명소를 방문했다.

홍보여행에 참여한 강광서 광주여행엔터장은 “눈이 많이 왔지만 눈 쌓인 운림산방의 풍경이 너무 멋있었다”며 “사계절 멋진 풍경이 있는 진도군 관광홍보를 위해 힘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홍보여행(팸투어)을 통해 더 많은 관광상품이 개발되고 아름다운 진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아지길 기대한다”며 “철도 이용 여행객들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진도군도 코레일과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다양한 여행상품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해남군, (주)항암식품-계곡농협과 항암쌀 생산 협약

친환경 항암쌀 생산 및 탄소치유농업 정착 협력하기로



해남군은 지난 21일 (주)항암식품, 계곡농협과 항암쌀 생산 및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명현관 해남군수, 서현철 항암식품 주식회사 대표, 박희재 계곡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항암쌀 생산 유통을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항암쌀은 항암성분인 파이토케미컬 함량이 높은 쌀로, 친환경 유기 비 재배단지에 해양심층수에서 추출한 미네랄을 활용한 탄소 치유 농법으로 재배하게 된다. 해남군은 내년 200ha 규모의 항암쌀을 생산

할 계획이다.

협약을 통해 해남군은 생산자들이 안정적으로 항암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계곡농협에서는 농가 교육을 통해 영농방법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기업체인 (주)항암식품에서는 항암쌀 수매와 유통 소비를 책임져 판로를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항암쌀 생산이 본격화되면 농업 생산자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가능성을 강화한 항암농산물 생산을 확대하고 판로를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항암쌀 외에도 다른 농산물에 확대하는 등 항암식품 생산에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완도군, 전남도 주관 산불 예방·대응 평가 '대상' 수상

완도군은 21일 전남도 주관 「2023년도 전남도 산불 예방·대응 우수 시·군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산불 예방·대응 실적 평가」는 산림청과 연계한 전라남도 산불 예방·대응에 노력한 시·군을 평가하는 것으로 완도군은 산불 진화 통합 훈련 실적, 산불방지 특수 시책 추진 등 평가 항목 전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지난 「산불 현장 통합 지휘 경연대회」의 최우수상에 이어 이번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전라남도 내 산불 행정 능력이 가장 뛰어난을 인정받게 됐다.

군은 매년 산불에 대비해 주기적으로 자체 기계화 시스템 운영 및 진화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 산불 진화 역량 강화에 힘써 왔다.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산림 인접지에서의 무단 소각 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 등을 추진함으로써 주민과 함께 산림자원을 보존하는데 노력해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